

아마존의 믿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지난 수년 간 백화점을 가 본적이 거의 없었다. 백화점에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을 걷게 해 주고 혹은 살 것이 있든지 아니면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먹으러 갔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의 생활을 하는 나이가 되었고 우리 부부가 특별히 백화점을 가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존 Amazon”을 애용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가서 직접 보고 사지 않으면 불안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아마존 때문에 가지 않고, 만져 보지 않아도 물건을 고르고 사는 일이 흔해졌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렇게 큰 백화점이 문을 닫는 일이 생겼다.

언제부터 내가 아마존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나 같이 의심이 많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사야하는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 하나로 물건을 고르고 돈을 지불하며 쇼핑을 하게 되었는가? 참으로 궁금하다. 아마도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려면 올려놓은 글을 잘 읽어 보아야 한다. 잘 찍어놓은 사진을 의지하다가가는 가끔 물건을 돌려보내야하는 일을 겪게 된다. 하지만 상세히 적어놓은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을 잘 읽어서 결정을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결국 아마존을 믿고, 아마존을 의지하고, 아마존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된 것이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하나님을 믿으며 아마존에 대한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아마존에서 취급하는 물건이라면 믿고 사는 그 믿음과 같은 일이 영적인 생활에도 생겨나고 있는냐?는 것이다. 아마존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함이 늦게 자라나지는 않는지? 각자 돌아보아야 한다. 가만히 정제된 믿음이든지 아니면 전혀 자라나지 않고 있는 넘어진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살펴서 늘 새로운 믿음이 꿈틀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라고 말씀하신다.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 믿어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전혀 의심이 없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자라 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아마존 회사보다도 못한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곳에서 하나님을 인생에 가장 중심에 있는 믿음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한다. 그것이 회개요 또한 믿음이다.

세상을 믿어도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 되었다. 이 40일 동안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또한 가장 현명한 생명의 길이다.